



사우스베이 지역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의 구원과 통일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북한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자

사우스베이목사회, 그날까지선교연합 함께 북한 위해 기도

“북한 동족과 통일을 위한 통곡기도회”가 남가주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열렸다. 9일 주일 오후 5시 원패 밀리교회에서 열린 이 기도회에서 성도 300여 명은 북한인권, 남북통일 등의 주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목회자들의 메시지, 탈북자의 간증, 영상물 상영, 찬양 등 다양한 순서가 있었지만 기도 그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대부분의 순서가 매우 집약적으로 진행됐다.

손인식 목사(그날까지선교연합 대표)는 “최후의 승부(왕하6:15-18)”란 설교에서 “이제는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를 해야 할 때이다. 최악의 인권상황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통곡하며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행사 중에는 미주 탈북여성 최 씨가 간증했다. 그는 “잡만 중국

에 가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며 두만강을 넘었다가 그곳에서 시애틀에 본부를 둔 교향선교회의 윤요한 선교사를 만나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온지 10년이 됐다. 최 씨는 10년 전 딸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탈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나누었다.

이날 기도자들은 북한의 우상독재와 인권 탄압이 끝나길,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길, 전쟁 없는 복음 통일이 이뤄지길 기도했다. 또 그동안 남북통일에 무감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한국교회가 잡에서 깨어 통일의 주역이 되길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

행사 중에는 탈북자 구출을 위한 특별 헌금시간이 있었고 그날까지 선교연합이 통일선교사에 관해 소

개했다. 통일선교사는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며 통일과 북한동포, 탈북자,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매달 20달러 이상을 북한을 위해 헌금한다.

이번 행사는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날까지 선교연합과 힘을 모으며 개최됐다. 목사회장인 윤복 목사(한인소망교회)를 포함해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고창현 목사(토랜스제일장로교회), 장경일 목사(원패밀리교회), 김병용 목사(서서장로교회) 등 이 지역 목회자들이 통곡기도회의 주요 순서를 맡았고 살롬교회 남성중장단, 사우스베이연합성가대, 소프라노 최정원 등이 특송을 연주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 10개 지역에서 일제히 부활절 연합예배

오는 4월 16일 부활절을 맞이해 남가주 전역에서 지역별로 교회 연합 부활절 새벽예배가 일제히 열린다.

각 지역 교회 혹은 목회자 연합

단체를 중심으로 해 LA, 오렌지카운티·중부, 엘바인, 사우스베이, 동부, 인랜드, 샌퍼난도밸리, 벤츨리카운티, 앤젤롭밸리, 빅토밸리 등에서 예배가 있다.

LA 지역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오전 6시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린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와 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두 단체는 함께 감사한인교회에서 오전 5시 30분에 예배 드린다. <3면에 계속>

“교회가 올타리 되자”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심포지엄

현재 90여 한인교회 동참 “나그네 돌봄 교회 역할”

반이민 행정명령에 의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 코네티컷교협이 공동으로 협력 발족시킨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첫 심포지엄을 열고 교회의 이민자 보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원태 목사(뉴욕교협 이민자보호대책위원장)의 진행으로 장위현 목사(UMC 평화위원장), 박동규 변호사, 김동찬 대표(시민참여센터) 등이 발제자로 나서서 위기 가운데 몰린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민교회가 함께 연대해 한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들은 레위기 19장 33절, 히브리서 13장 1-2절 등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들을 돌보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인교회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제시했다.

심포지엄 개최예배 설교를 맡은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누가복음 10:3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한인교회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회들이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교회가 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90여 개 교회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고, 이 숫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가운데 10개 교회씩 팀을 이뤄 한 교회가 피난처교회가 되고 나머지 9개 교회가 피난처교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피난처교회를 활용하자는 방안이다. 피난처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위 시설 및 주방 시설 등 생활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기타 서류미비자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

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집에 갑자기 방문했을 때 판사가 서명한 수색 영장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 등의 법률적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발제 및 토론 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류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목회가 행복해 지길 원하세요?

기독일보 주최로 김상덕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그 길을 찾다” 모임에 남가주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목회를 하며 힘들고 낙심 되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김상덕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배우며 ‘행복한 목회’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니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 귀한 모임에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 한인소망교회 윤 목 목사



강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및 35년 목회

- **일시** : 4월 27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없음
- **문의** : (310)715-9902, (213)434-1170

*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갯스월연합교회가 창립 49주년을 맞이해 임직식을 거행했다.

하나님의 소원 이뤄드리는 교회 되길

창립 49주년 맞은 갯스월연합교회 임직예배

갯스월연합교회가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아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귀한 일꾼을 세웠다. 이날 임직예배에서 ▲장로 박병규 ▲안수집사 김덕수, 서효원, 엄태환, 이성현 씨가 임직했다.

이날 예배는 C&MA 한인총회 임원들과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임원,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희철 담임목사의 인도로 서철원 목사(총회 서부지역회장)의 기도, 이창남 목사(총회 개척국장)의 성경봉독 후에 백한영 목사(총회 감독)가 요한일서 1장 1-10절을 본문으로 “생명의 사귄”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임직식에서 이희철 담임목사가 서약을 받는 등 예식을 거행했다.

권면을 전한 박해성 목사(총회 서부지역회 부회장)는 “임직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책임도 따른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담임목사와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인랜드교역자협의회 회장 강문수 목사는 “갯스월연합교회는 인랜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태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이다”라면서 “49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역 커뮤니티 섬김과 선교를 감

당케 하심에 감사하다.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라”고 전했다.

임직자 대표로 답사를 전한 이동규 장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선배 장로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후배 임직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장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사를 전한 이희철 담임목사는 “내년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의 해”라며 “갯스월연합교회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모든 예배는 김익환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인규 기자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 취임

GBC 미주복음방송 사장에 이영선 목사가 취임한다. 지난 3월 21일 이사회에서 사장에 선임된 이영선 목사는 4월 16일 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신임 이사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와 함께 취임하게 된다.

미주복음방송 측은 “이번 감사예배에서는 일체의 선물이나 화환을 받지 않는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이영선 사장
©밀알 제공



한기홍 이사장
©본사 DB

전했다.

이영선 목사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주재원으로 1981년 미국에 왔다. 교통사고를 당해 가슴 아래가 모두 마비됐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동안 뉴저지밀알선교단 이사 등을 지내며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다가 2000년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이 됐다. 그는 2015년 이래 미주 밀알 총단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미주 가정 선교 세미나 열린다

5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가주성서교회에서 미주가정선교회 주최로 <제6기 가정선교 세미나>가 열린다.

가정, 가정 선교, 가정 문제의 해결 방안 등 3가지 주제에 관해 2시간 씩 강의가 있을 예정이며 강사는 미주가정선교회 대표이며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관심사(쿰란출판사)”를 저술한 이재근 목사다.

참가비는 부부당 50달러이지만, 4월 20일까지 신청하시면, 30달러로 할인된다. 참가비에는 이 목사의 저



이재근 목사

서와 점심식사가 포함돼 있다.

이재근 목사는 “가정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이며, 사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가정을 지키고 파수하며, 파괴된 가정을 바로 세우고 회복시키며, 가정을 복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원장이 기독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주기독한의사협 정기에배 드려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는 지난 9일 주일 오후 5시 4일 정기에배를 드리고 4시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소망장로교회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장재수 원장의 기도와 백광덕 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드렸다.

4시간 보수교육에서는 중풍에 대하여 남산당 한의원 김용훈 원장이

강의했다. 그는 50여 년의 한방 경험에 근거해 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김 원장의 강의는 다음 월례회인 5월 14일에도 계속 된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는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5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한의사와 한의대 재학생들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에게 추천을 통해 상품도 주어진 다. 문의) 213-703-8541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10% 사회환원 오픈뱅크 “더 나누겠습니다”



민 행장이 오픈뱅크의 나눔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오픈뱅크가 2가지 나눔 프로젝트를 더 실시한다. 지난 6년간 오픈청지기재단을 통해 무려 172만6천 달러를 사회에 환원해 온 오픈뱅크는 LA 다운타운 지점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7월 7일부터 3박4일간 ‘멕시코 엔세나다로 떠나는 사랑의 크루즈 여행’이다.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 가는 가정을 뽑아 멕시코로 크루즈 여행을 보내 준다. 특히 가정 형편으로 인해 가족 여행을 가 보지 못한 부모와 자녀가 대상이다.

두 번째는 SBA 론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부 프로그램이다. 9월 30일까지 SBA 론을 신청해 승인된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에 1천 달러를 고객의 이름으로 기부해 주는 것이다. 융자 건수에 따라 1천 달러가 기부되며 기부 대상은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면제를 받는 단체여야 한다. 문의는 213-892-1164로 하면 된다.

오픈뱅크는 하루를 전 직원 예배로 시작한다. 채용 기준에 종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80% 정도가 기독교인이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각 지점에는 코인 드라이브가 설치돼 성탄절에 나눔을 실시하고 직원들은 컴패션을 통해 전세계 빈곤국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권 셀비 기자

축 부 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FGC LA FULL GOSPEL CHURCH

담임목사 : 진유철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주소 :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Tel 323 - 913 - 4499
Fax 323 - 913 - 4494
www.lafgc.com
lafgcusa@yahoo.com

주일 대예배

1부 오전 7:40 본당
2부 오전 9:30 본당
3부 (열린예배) 오전 11:45 본당
4부 (조용기 목사 영성예배) 오후 1:30 권사회실

예배 모임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영아부 예배 (0-2세) 주일 오전 9:30, 11:30 / 본당 영아부실
유치부 예배 (3-5세) 주일 오전 09:30, 11:30 / 신 교육관 유치부실
유년부 예배 (1-5학년) 주일 오전 09:30, 11:30 / 구 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 / 구 교육관 (AWANA)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0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MIG 한어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3부 예배) / 본당
EM 예배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EM CAM(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30 / 신 교육관 3층 EM 예배실, 토요일 19:0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 구, 신 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09:30 / 구 교육관

부활절 맞이해 연합 정신 확산되길

OC 지역, 중부 지역 연합예배 드려

〈1면에 이어 계속〉오는 4월 16일 부활절을 맞이해 남가주 전역에서 지역별로 교회 연합 부활절 새벽예배가 일제히 열린다. 이에 각 단체마다 예배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이 가운데 두 지역 단체들이 서로의 기독교권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드리기로 해 화제다. 바로 오렌지카운티(OC) 지역과 중부 지역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 내에서는 교협이나 목사회, 평신도 단체가 연합해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역을 넘어 연합이 이뤄지는 것은 남가주 교계에서 드문 일이다. 과거 2013년에는 당시 남가주교협 회장이었던 진유철 목사가 OC교협 부활절 예배에서, OC교협 회장이었던 민경엽 목사가 남가주교협 부활절 예배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교류했을 때에도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11일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에서 최국현 중부교협 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단체가 하나 되어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 됨을

확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현영 OC교협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남가주 교계는 서로 나누어지는 부정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두 지역 단체가 연합하면, 작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재만 OC교협 부회장은 “OC 지역과 중부 지역은 중복된 지역이 많다. 단체 간에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팀이다. 이런 연합 정신이 남가주 교계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 두 지역 단체들은 연합을 위해 예배 순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교회 수나 단체 수는 OC가 상대적으로 더 많지만 예배 장소는 중부 지역에 있는 감리산인교회로 결정됐고 설교도 이 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가 전한다. 사회도 중부교협 최국현 회장이 맡는다. 대신 OC교협은 대표기도를 조현영 수석부회장, 인사말을 이호우 회장, 축도를 민경엽 중부교협장이 한다. 특



OC와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이소연 사모(OC교협 회계), 김익현 목사(OC목사회장), 조현영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 최국현 목사(중부교협 회장), 박재만 목사(OC교협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노상철 목사(OC교협 부총무), 남삼국 목사(OC목사회 수석부회장), 차권희 목사(중부교협 수석부회장), 찰스 김 목사(중부교협 회계)

별기도 순서에서는 김익현 OC목사회장과 함께 엄재선 OC장로회 회장, 이관우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장, 신현철 OC교협 부회장 등이 지도를 인도한다.

두 지역 단체들은 이번 예배의 헌금 가운데 행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OC 지역과 중부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했다. OC교협은 이번 회기부터 미자립 교회 후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부교협도 이번 헌금을 이 일에 사용하는 데에 적극 찬성했다. OC교협과 중부교협은 이번 연합 활동을 시

작으로 향후 여러 교계 사업에서 힘을 모을 예정이다.

그동안 OC 지역에 속해 연합예배를 드렸던 앨버진 지역은 올해 예배 장소가 감리산인교회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에는 앨버진은누리교회에서 오전 5시 30분에 앨버진 지역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를 중심으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동부 지역은 LA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할렐루야한인교회에서,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약교회에서,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샌퍼난도밸리한인교역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각각 오전 5시 30분에 예배 드린다.

벤츄라 지역에서는 벤츄라교역자협의회가 카마리연합감리교회에서, 앤털롭밸리 지역에서는 앤털롭밸리교회및목회자연합회가 랭케스터사랑의교회에서 오전 6시에 예배 드리고, 빅토밸리 지역에서는 빅토밸리한인목사회가 필렌중앙장로교회에서 오전 5시 30분에 예배 드린다.

김준형 기자

올해도 미국 위해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한다

5월 4일 국가 기도의 날 열려

남가주 지역 한인들이 올해도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에 동참한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은 미국 전역의 크리스천들이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제66회를 맞이한 올해 기도회의 주제는 “For Your Great Name’s Sake! Hear Us, Forgive Us, Heal Us!”로 다니엘 9:19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에서 나왔다.

올해는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이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 한인들은 JAMA와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중심이 되어 5월 4일 오후 7시 30분 주님세운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 이 행사에는 OC교협, 남가주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등 교계 단체와 함께 순무브먼트, HYM 등 청년 단체도 참여한다.

이들은 미국의 회개와 부흥, 가정과 학교, 교회와 문화, 사회 정의 등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들,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 연방의원, 주의원, 군 지도자와 교육 지도자, 소방관, 경찰관,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국가 기도의 날을 준비하는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설명했다.

국가 기도의 날은 원래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지만 한인들은 특별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북핵 문제, 대선 등이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꼽힌다.

1세 한인 목회자와 함께 2세 목회자, 청년 단체 리더들, 한인 정치인

과 교육자 등 25명이 기도를 인도할 예정이다.

JAMA는 이 행사가 남가주를 넘어 미주의 모든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하도록 전국 100여 교회에 기도회 관련 자료를 발송했고 5월 5일 금요기도회를 국가를 위한 기도회로 지켜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다. 무신론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적극적으로 부활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차량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인생 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하를 다 돌라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아이비 유학

3·7·21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Shelby Kwon
Director

앨버진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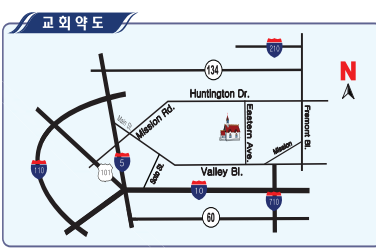
신동철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전 11:00
EM 1부 오전 9:00
EM 2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30
금요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6:00

나성한인교회

다운타운 동쪽에(한인타운에서 10마일) 세워진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홀리스 사역과 세계선교에 힘쓰고, 다음세대에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젊은 세대를 위한 소그룹 모임과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외약도

나성한인교회
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
2241 N. Eastern Ave., LA, CA 90032
T.(323)221-9531
www.lacpc.org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3〉

무슬림 대학생 기숙사 전도 이야기

작년 5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시외버스로 노방선교팀 4명이 최 남단 안탈리아(밤빌리아)를 향해 나그네처럼 떠났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이스파르타(Isparta)라는 도시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경이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다. 기온이 상당히 떨어져 몸이 움츠러들었다.

우리는 캄캄한 도시 외곽길을 찬양을 부르며 걸었다. 걸으며 기도하였다.

“주님! 복음을 전할 예비된 사람을 보내 주소서.”

일행은 비 오는 밤을 밖에서 새터라도 아랑곳 하지 않는 용사들이었다. 한참을 걷는데 한 젊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따라왔다. 이스파르타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그가 물었다. “여기에 어떻게 왔나요?” 우리는 우리를 도시여행자라고 소개했다.

그가 어디로 갈거냐고 묻기에 갈 곳이 없다 했다. 일단 비가 너무 왔고 오후부터 아무 것도 먹지 못하셔서 비도 피할 겸 식사도 해야 하니 식당을 가르쳐 달라 했다. 그 청년과 함께 물어 물어 도착한 곳은 허름한 점포 식당이었다. 요리는 없고 간단한 빵과 과일 등을 먹었다.

우리가 먹는 중에 그 청년은 어딘가에 전화를 하며 한참 통화를 하였다. 음식을 먹었으나 비가 그치는 기색이 없었다. 그 청년이 말했다. 자신은 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에 사는데 방금 그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룸메이트와 상의하여 자기 기숙사에 우리를 머물게 해 준다는 것이다.

빗길을 한참 걸어 그의 기숙사에 도착했다. 두 남자들이 지내는 방이라서 그런지 들어서자 시금털털한 종각 냄새같은 복잡한 냄새가 코를 찔렸다. 그 청년은 방이 작고 지저분하여 미안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고마웠고 그 청년이 참 멋있어 보였다.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 입고 세평 남짓한 기숙사 방 안에서 땀 뿜어 내며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다가 우리의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우리는 그 청년에게 잠시 복음을 소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청년은 당황했으나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듯했다. 복음을 전하길 허락한 것이다. 이 때는 이미 밤 11시가 지나고 있을 때였다.

〈계속〉



필자는 터키 이스파르타를 방문했을 당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대학생의 기숙사를 방문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당시 그 기숙사의 모습.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 (VIII)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5할이고, 100만 명이 병을 앓고 있는 형편이었다. 선교사들은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세웠다. 그 첫 번째 병원이 1920년 세브란스병원 내과의사 스타이츠(F. M. Stites)에 의해 세워졌다. 여기서 치료받은 최초의 환자가 독립투사 배동섭이다. 이 병동이 설립되는 과정이 「세브란스교우회보」에 다음같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세브란스병원 내 철강으로 둘러싸은 광장한 테니스 코트 일우에 유취하고 고독의 자태를 쓸쓸히 보이고 아직 토지에 면적만 점점하고 있는 것이 조선 최초의 결핵병사로 1920년 3월 당시 내과 교수로 있던 스타이츠 의사의 주선으로 일금 6백 원을 들여 건축하여 우선 작고한 배동섭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에서 시작된 결핵병원은 선교사들이 주재하는 선교지부 여러 곳에 세워졌다. 평양에는 1925년에 결핵진료소가 세워졌고, 1928년에 감리교에 의해 황해도 해주에 ‘구세결핵요양원’이 세워졌다. 후에 전남 광주에 제중병원이 세워져 결핵환자 치료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

결핵환자 치료와 결핵퇴치운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 운동은 평양에서 선교하던 로제타 홀(R. S. Hall, M.D.)에 의해 비롯됐다. 로제타는 내한한 지 3년 만에 순직한 의사 남편 홀(W. S. Hall)의 순직을 기념해 세운 ‘기흥병원’에서 헌신적 노력을 했다. 로제타는 미국에서 시작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한국에 도입하여 결핵퇴치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결핵의 무서움을 일깨우는 일도 겸해 감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1932년 12월 우리

나라 의학사상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했다. 처음엔 선교사들 중심으로 판매되던 실은 차차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해 결핵박멸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 결핵퇴치 사업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 일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항결핵회(抗結核會)가 결성됐는데, 그 첫 번째도 역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시작됐다. 1928년 10월 세브란스병원의 교직원, 학생 및 동문들이 망라되어 항결핵회를 조직했다. ‘세브란스교우회’는 다음과 같이 현실을 직시했다. “전 인류의 8% 즉 약 매 12인에 1명은 결핵으로 사망하며 16억의 세계 총 인구의 8% 즉 1억 2,800만의 결핵환자가 유하여 종말이 병으로 사망할 운명을 가진 자들이다.조선에 재하여 결핵병은..... 연년이 증가하여 자세한 통계는 구득하기 난하나 15%를 불강 할 것 같다.인구가 불과 2천만에 300만의 결핵환자를 가지게 되는 조선은 가련타 함보다 전율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약 매 7인에 1명의 비례되는 결핵환자 중에 생활하는 오인은 항상 그 전염의 위험 하에 생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28년 10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직원, 학생, 동문들을 중심으로 ‘인류가 전율하는 가경할 결핵병을 예방코저’ 이 회를 결성한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측하는 기사지만 당시뿐 아니라 현재까지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 주변에서 본다. 결핵병은 우리 민족을 꾸준히 괴롭혔고 또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선교사들은 각지에 결핵병원을 세워 전염성이 강한 이 병에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치료해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새 삶의 길을 열어 주었다. 특히 남장로교회에서 설립한 전남 광주의 제중병원(현 기독교병원)은 결핵환자 전문병원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결핵 퇴치에 공헌한 초기 선교사들의 공헌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종연, 고승혜,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학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학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학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 리스장학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학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정제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사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KA, IL 60067
아들란타 리장학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학사
Lee's Mortuary FD1164

나실인의 사명-2

사사기 14:5-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신 백성에게는 반드시 용도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받아들여 일꾼으로 삼으시기까지는 그 백성을 두고 반드시 이루어 내셔야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일은 스가랴 4:6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고,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태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삿13:3-5)”고 말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13:24-25에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했으며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와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자라나서 실질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어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실현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삼손은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준 것같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사사기 13:1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는 말씀처럼 20여 년 전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와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답나를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답나로 내려가다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레반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며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4:4과 같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습니다. 사사기 14:4 하반절에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어기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손이 이 여자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결국 그 부모가 이를 허락하고 함께 답나로 내려가며 생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의 포도원은 교회, 즉 국가 단위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어린 사자는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을 사자와 같이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니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실인으로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답나로 내딛었는데 그 사명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자리잡고 행세하는 사자를 죽여 없애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맨주먹으로 사자와 대적하기 시작하자 여호와와 신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 택하고 구속한 자가 하나님이시고 삼손에게 사명을 맡긴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사명감만 투철하다면 그것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심을 확인시켜 주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장악하고 있는 사자를 죽인 것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예조(豫兆)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답나에 가면서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레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취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풍속에 따라 칠 일간 삼손의 아버지가 블레셋으로 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고 삼십 명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어 “잔치하는 칠 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운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운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줄지니라” 했고 그들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며 자신이 죽인 사자를 일컫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 일이 되도록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게 합니다. 결국 제칠일 해지기 전에 삼손에게 그들은 정확한 답을 말하게 되고 삼손은 뒤늦게 깨닫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

었던 그 동무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삿 14:19-20).

여러분들은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영적 소속이 분명히 다를 때는 신앙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진리의 기밀을 보안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인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블레셋에 속한 여인으로 영적으로는 상반된 입장의 사람이었기에 사명에 열중하지 못하게 되고 여색에 빠져 신세를 그르치는 폐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 소속이 달랐던 여인임에도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 이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삼손의 그릇된 계산이 패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의 사람들보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통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속받은 나실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 또한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과정으로 성취시켜 드려야 합니다. 삼손과 같이 사명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그릇된 생각과 방법을 사용하여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www.marhlaw.com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은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였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뺄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인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 알고 있습니다.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본 재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예수 부활하셨네”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ier

행복재단에서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나의 모습을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행복재단의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 컴퓨터와 영어능력 있는 분
- 재능을 전수 및 기독교상담 봉사하실 분
- 관절염 환자 한약 분 30분 무료(잇가 \$80.00)
선착순 배부(건강원 기부)
- 뱅크럽시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Chapter 7 변호사 비용 \$350.00)

행복재단(Be Happy Foudation)

Tel.(213)545-4787(오후1시~4시)
981 S. Western Ave. #300A, LA, CA 90006
email:bhfhelp@gmail.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시드니 새순장로교회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
설립되어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호주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말씀으로 제자를 바로 세우고,
기도에 전념하며, 선교와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비전 아래 영적 부흥과 새 세대를 세워나가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1. 학력 : 본 교단이 인정한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총신, 고신, 합신, Christ College(P.T.C.), 미주 총신 등)
2. 연령 : 만 45세 이상
3. 경력 :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담임목회 경력
4. 이민교회 경험 및 영어 가능자 선호
5.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2.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학위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자기소개서(신앙 및 성장 배경, 목회 소명과 목회 경험 등 포함)
5. 목회계획서 :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 지원 동기 등(A4용지 4매 이내)
6.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2편(CD 또는 웹사이트 Youtube 등) link
7. 존경하는 분의 추천서 2통(봉인)
8.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주보(4주간)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5월 13일

●제출처(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 : Sydney Sae Soon Presbyterian Church
PO Box 4871, North Rocks NSW 2151, Australia
- Email : chungbing@saesoon.org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Email 로만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www.saesoon.org

시드니새순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십자가의 길은 깨어짐의 길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못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채찍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상자를 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서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깨어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들어 나누어 주실 때 먼저 그 떡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몸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그 몸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 피와 물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요 19:34). 깨뜨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깨뜨립니다. 옥함을 깨뜨린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함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 드렸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부어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쁨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깨어지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요 1:14).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스카라 선지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속 13:1).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생수가 쏟아졌습니다. 깨어짐은 아픔입니다. 깨어질 때 아픔니다. 깨어질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깨어짐이 없는 예수님의 생수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

을 깨뜨려 히브리 백성들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깨뜨려 전 인류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깨어짐이 없는 생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참 만족을 줍니다.

깨어짐은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씨앗의 생명은 씨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의 껍질은 벗겨져야 합니다. 씨앗의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 바로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씨앗이 깨어질 때 씨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흘러나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후에 10개월 동안 자궁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산달이 되면 어머니는 자궁을 깨뜨려 피와 물을 쏟아 아이를 출산합니다. 자궁을 깨뜨리지 않고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려 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우게 하심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움이 있을 때 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질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려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는 깨뜨림의 고난을 통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짐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의 깨어지심과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2.5cm에 달아난 25만 불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완전 정지를 합니다. 그러나 운전이 익숙해지면 완전 정지가 아니라 속도만 줄이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해집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티켓을 받게 되었을 때 남들도 다하는데 왜 나만 잡았냐고 물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조금의 욕심이 재앙을 부릅니다. 2 feet 채

안 되는 거리의 퍼팅에 1cm라도 더 가까이 가면 우승을 움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욕심이 결국 재앙을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하는 사람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1m 높이는 큰 변수가 되지 않지만 수영장에서 물에 뛰어드는 높이 1m는 큰 유혹이 되듯이, 장타를 칠 때 1cm의 유혹은 없지만 퍼팅할 때 1cm는 큰 유혹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짐으로 타협하는 2.5cm의 예배시간, 기도시간은 없는지,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의 필요에 눈감고 가는 도덕감각 2.5cm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딤후 2:5)

중단할 수 있는 힘은 영광스럽습니다



정 기 정 목사
샘물교회

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제어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네가 아니다’ 하셨을 때 중단한 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인기를 얻으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신 순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영

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복수를 못해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복수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전전하라 하시면 가고, 중단하고 싶지 않은데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을 기쁘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독기 어린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부여받은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조절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수수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애완견, 미용견보다 위용있던 경찰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 탄 정복자로 오르지 않고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남가주 기쁨의 교회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2:45
유치,아동,학생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5:45(화~금)
오전6:20(토)
25500 S.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326-0300

UCS 신학대학교



아브라함 최
박사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선지동산
United Christian Seminary University
3130 Wilshire Blvd. #210 LA, CA 90010
T.(213)388-5992

세계사랑선교회



이삼선
대표목사

한국어,스페인쉬, 영어
전도지 무료배부
천국 간증 CD 배부
psamslee@gmail.com
15411 S.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213)220-3737

한마음 제자교회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학금요찬양기도회: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5:30(월~금)
오전6:30(토)
500 Shatto Pl.#410 LA, CA 90020
T.(213)321-4433

LA 기쁨의 교회



이희문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10:30
주일학교: 오전10:30
청소년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12:30
938 Wilshire Blvd. LA, CA 90010
T.(213)351-9975

ECO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담임목사

주일1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00
새벽예배(화~금)오전5:30(토)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글로벌선교교회



김지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9:15
주일3부예배: 오전11:00
EM예배: 오전5:00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909)396-4441

베델한인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4부청년예배: 오후1: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854-4010

shalom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

지역사회 숨겨진 장애인들을 찾아내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
http://shalommin.com
2869 W.Pico Blvd. LA, CA 90006
T.(323)731-7724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전10시30분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515-1191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이승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금요기도회: 오후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5:30
(토)오전6:00
1540 S. St Andrews Pl., LA, CA90019
T.(818)983-9024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
주일유초등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토)오전 6:00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언약교회



고귀남
담임목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기준이 되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유년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111 N.Virgil Ave. LA, CA 90004
T.(213)820-0003

풍성한 교회



박효우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청년대학부예배: 오전11:00/오후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381-9490

미주양곡교회



지용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519 S.Western Ave. LA, CA 90020
T.(213)380-9377

동부사랑의 교회



박승규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12:00
새벽예배:(월~금): 오전5:20
(토) 오전6:30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갈보리믿음교회



강진웅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3300 Wilshire Blvd. LA, CA 90010
T.(213) 365-8880

감사한인 교회



김영길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11:30
새벽예배:(월~금): 오전5:30
(토)오전6:0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사우스베이 목사회



회장
윤 목 목사

총무 안병권 목사
T.(310) 715-9902

창대장로교회



이춘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영어): 오후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213) 365-8880

오레곤벨엘장로교회



이돈하
담임목사

1부 한국어예배: 오전8:00
2부 한국어예배: 오전9:30
3부 한국어예배: 오전11:30
EM예배: 오전11:30
새벽예배: 오전5:30(화~금), 오전6:00(토)
18370 S.W.Shaw St. Aloha, OR 97007
T.(503) 649-3990

LA 자연건강노인 복지회



김무철
회장

LA Senior Welfare Association
3123 8th St. Suite 211 LA, CA 90005
T.(213)282-0133
Email: s4248ss@naver.com

LA 사랑의 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520 S.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T.(213) 386-2233

수업 시간에 동성애 비판한 교사, 징계 위기

학생이 교육청에 민원… ‘학생인권조례’가 판단 기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교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K중학교의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상관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학생 중 일부가 이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고, 이에 이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에 나선 것.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중학교 측에 Y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교육한 자료 일체와, 교육의 취지 및 경위 등을 담은 Y교사의 소명서, 학교 측의 조치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며 우려하기 시작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광주,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는 민원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일 뿐, 동성애 관련 접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독교계를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엄연히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제2장 제1절 제5조)하고 있고, 학생인권옹호관 역시 이 조례를 근거로 판단하기에 자칫 이번 사건이 Y교사에 대한 징계로 이어져 교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동성애 비판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Y교사에 대한 조사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예정 합신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한 Y교사의 행위가 만약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학생인권을 명목으로 한 교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기독교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예정 합신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성별이나 인종 등과 달리 성적 지향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이것을 법률에 준하는 조례로 이미 명문화 한 이상 이번 일과 같은 논쟁은 향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무엇이 차별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인권 침해 여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순 행정 절차일 뿐’이라는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

호관은 민원을 제기한 측과 Y교사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뒤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Y교사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측에 Y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서울 삼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금식기도 성회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족 구원의 길, 교회가 연합해 금식기도로 부르짖자”

13~15일 ‘국가금식회개의 날’ 성회 앞두고 기자회견

오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삼암월드컵경기장에서 ‘국가금식회개의 날’ 성회가 열린다.

행사를 앞두고 주최측은 6일 오후 한국교회연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의 취지와 일정에 대해 전하며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및 대선정국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일 듯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민족 구원의 길은 한국교회가 연합해 금식과 회개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죄는 공산주의를 불러들이고 주체사상에 빠져 자칭 태양신 김일성을 우상숭배해 온 것이고, 남한의 죄는 축복과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함을 버리고 물질과 mammon을 우상숭배한 것”이라며 “교회가 이것을 우선 회개

해야 한다”고 했다.

행사의 준비위원장은 신성종 목사 외 젊은 목회자들과, 중보기도회, 메시지, 찬양과 경배, 기도, 선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기존의 전형적인 형식과 유명 목회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기도회를 지향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은애 기자

한기총이 특정 교단 정리해야 통합

한교연, 임원회서 기존 입장 재천명

오는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와의 통합을 선언하기로 했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그 동안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소위 ‘이단 문제 선결’을 재차 강조했다.

한교연은 11일 오전 예정 합동개혁 총회회관에서 제6-3차 임원회를 열고,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 이하 통추위)의 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통추위원장 고시영 목사에 따르면 양측 대표단은 지난 4월 4일 모임을 갖고 1)양 기관 대통합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각 제도와 규정, 절차는 양측 통추위에 위임하며 3)7.7정관 이전의 교단은 그대로 받고, 7.7정관 이후에 가입한 교단은 심사를 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받기로 했다. 단, 그 동안 통합의 걸림돌이 돼 왔던 모 교단에 대해서는 한기총이 통합 전에 처리하고, 이를 한국교회 앞에 공적으로 선언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통합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고 목사는 보고했다.

특히 임원들은 “한기총이 문제가 되는 교단을 정리하지 않는 한 한기

총과의 통합 선언은 의미가 없다”면서 12일 예정된 ‘한교연-한기총 통합 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선언’을 빼고 ‘한교연-한기총 통합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으로 명칭을 바꿔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밖에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주관하는 부활절연합예배와는 별개로 한교연이 주최하는 부활절연합예배를 16일 새벽 6시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에서 드리기로 했다. 또 ‘교회강제철폐 진상 규명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근 목사)를 조직해 재개발로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회장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3시에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 그 동안 이를 추진해 왔던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는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교총은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교단장회의 소속 교단들은 양 단체를 탈퇴하고, 별도의 조치를 통해 한교총 중심의 하나 된 연합단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사/명/선/언

복음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불신자를 불러 양육하는 예배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축부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총기 담임목사

choonghyun.org

충현선교교회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이날 참석한 이사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천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평가회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평가회 및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는 탄핵 정국 속에서 개최 여부를 고민하다 예년처럼 3월 2일 열렸으며, 3월 2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국가 기도의 날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 국내외 교회와 함께 기도했다.

기자회견에서 국가조찬기도회 채의송 회장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시점에 기도회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 ‘하나님께 여쭙보자’는 마음으로 매일 오후 8-10시 북한산에 올라 기도하고, 큰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 40분에게 여쭙봤다”며 “그 중 37분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3월 2일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그대로 열게 됐다”고 밝혔다.

채 회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1,200만 성도와 750만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들까지 2천만 명이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주시지 않을 리 없다고 생

각한다”며 “3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함께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게 된 것도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50주년이면 국가조찬기도회가 반세기가 되는데, 반세기를 마감하면서 국가조찬기도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될 것인지, 개혁과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규 전 회장은 “내년이 국가조찬기도회 50주년인데, 3년 전부터 이를 준비해 왔다”며 “우선 50년사를 발간하고, 국내외 지회도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채의송 회장은 “우리나라 국가조찬기도회가 모범이 되는 만큼, 오는 6월 이스라엘 독립 1백주년을 기념해 국가조찬기도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아직 국가조찬기도회가 많지 않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과도 협력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北에 억류된 선교사 송환 촉구

북한정의연대, 기자회견 통해 호소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판결 받고 강제억류 중인 한국인 및 외국인 선교사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베드로 대표는 최근 국·영문으로 출간한 「북한의 종교 실상」(The Realities of Religious Oppression in North Korea)이란 자료에서 북한정권의 조직적 종교인 박해실태 등 반인도범죄를 탈북민들의 증언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관계자들인 박영률 목사(한국북지선교연합회 이사장, 북한억류 임현수 목사 손원동서), 김규호 목사(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주동식 회장(김정옥선교사후원회장), 이한별 소장(북한인권증진센터, 북

한 억류 김국기 선교사 관련)이 나와 김정은 정권 이후 증가된 외국인 선교사 강제 억류 실태를 알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이들의 송환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북한정의연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인 선교사는 김정옥(2013년 10월), 김국기(2014년 10월), 최준길(2014년 12월) 씨가 있고, 외국인선교사로는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2015년 1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뫼비어(2016년 3월), 미국인 김동철 목사(2016년 5월), 중국인 장만석 집사가 있다.

아울러 북한정의연대와 참가단체들은 한국기독교가 북한의 반인도적인 주체사상과 유일체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과, 한국정부와 북한당국이 남북인권대화를 통해 억류된 선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송환협상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웅 기자

원로 기독 문인 황금찬 시인 향년 99세로 별세

원로 기독 문인이자 한국 문단의 거목인 황금찬 시인이 8일 새벽 4시 40분께 노환으로 강원도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문학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1947년 월간 <새사람>과 1948년 <기독교 가정>에 시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1953년 <문예>지와 <현대문학>지로 등단했다.

1965년 첫시집 <현장> 이후 <느티나무와 추억>까지 37권의 시집과 에세이집 <너의 창에 불이 꺼지고> 등 24권의 산문집을 출판했다. 특히 고인은 1967년 주태익 선생, 김현승 선생과 함께 한국기독교문인협회를 창립하고, 한국기독교 문학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 왔다. 기독교문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했으며, 기독교문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고인은 생전 ‘기독교 문학’이라는 말 대신 ‘신앙 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대는 기독교를 상식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학이라는 관념적인 말보다는 ‘신앙 문학’이란 말을 쓰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없었던 ‘예바다’나 ‘달리다굴’ 같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 안에는 절대성이 담겨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최고의 시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왜 좋은 시를 못 쓰겠냐”며 “좋은 시를 쓰려면 신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알고 나서 신앙 문학으로 새롭게 출발하자”고 했었다.

이대웅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바질중학교 / 토요새벽-17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사를 척결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피사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7:40 EMO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학교 토 오전10:00-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회 오전11:00-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담아가는 교회, 영적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일북인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에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람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연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
수요류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장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몸,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리가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은혜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알렘찬양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써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최승묵** 담임목사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일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중/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렌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권오균**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구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일메가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2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훈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이승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뉴저지교협 부활절연합예배

근래 최다인원 참석 예상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 전 지역 연합해 드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별히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전 뉴저지 지역이 연합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본격적인 부활절연합예배 홍보를 시작하는 등 근래 최대규모의 부활절연합예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뉴저지교협은 오는 16일 새벽 5시 45분부터 7시 10분까지 티빅 아모리센터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티빅 아모리센터는 3천여 석 규모로 뉴저지교협측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 참석인원을 1천5백~2천 명으로 예상하며,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면 2천 명 이상의 규모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는 매년 뉴저지교협이 주력하고 있는 호산나 복음화대회의 참석인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뉴저지교협은 그동안 12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드려왔다. 부활절 새벽에 온 뉴저지 지역의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뉴저지교협 조창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현재 뉴저지교협 김종국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적극적으로 뉴저지 지역 교회들에 참여를 요청하는 등 어느 때보다 뜻깊은 부활절연합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와 관련, 총무 장동신 목사는 “뉴저지 한인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뉴저지의 교인들을

향해, 한인들을 향해, 또 이 땅에 있는 미국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기획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저지교협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가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신 목사는 “기존의 부활절연합예배는 어른들만 참여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2017년 부활절새벽예배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침을 맞으며 다음 세대들과 함께 부활을 선포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에는 특별히 300여 명 규모의 연합 합창단도 구성돼 부활을 더욱 힘차게 선포할 예정이다. 합창단에는 뉴저지 지역 주요 교회들과 함께 목사합창단, 사모합창단, 장로합창단, 권사합창단 등 현재 활동중인 합창단들이 참여한다.

회장 김종국 목사는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계기로 현재 뉴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합운동인 ‘러브 뉴저지’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외에도 뉴저지교협은 그동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각종 학술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23일~25일 호산나복음화성회와 9월 10일 뉴저지대찬양제, 9월 16일~17일 종교개혁 500주년 컨퍼런스 등 종교개혁을 기념한 굵직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



한인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1.5세, 2세 여성 목회자들은

왜 한인교회에서 일하지 못하는가?

컬럼비아신학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이하 CTS) 한인학회(KAM)와 복음주의연합(Evangelical Coalition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회장 한병철)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인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가 지난 2, 3일 이틀에 걸쳐 CTS 해링턴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컨퍼런스는 한인교회 내의 전반적인 여성의 리더십과 여성 목회자의 역할에 관해 한인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약속을 나누고자 준비됐다. 21세기의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인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한 여성 리더십 포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성 리더들의 체험 및 간증과 함께 조문길 목사, 함은비 목사, 한은총 목사, 오지현 목사 등이 ‘이민

교회에서 건전한 환경 함양’, ‘기독교여성 리더십’, ‘향후 지향점에 대한 고찰’ 등의 주제 강의를 전했다.

주제 강연자로는 미국장로교 여성목회자 회장인 김은주 박사가 나섰다. 김 박사는 “미국장로교 내의 1.5세, 2세 여성 목회자들이 왜 한인교회에서 일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언어와 문화 차이 등의 문제도 있지만 한인교회들에 여성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현재 교회 내에서 기존의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상호소통하는 하나되는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 분야는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다. 많은 한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초빙한 목회자보다 현지에서 성장한 리더들이 교인들과의 소통에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영 기자

애틀랜타교협, PCUSA 목회자 간담회

“서로 격려하며 함께 부흥하자”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상철 목사)가 지난 30일 정기임원회와 함께 미국장로교(PCUSA) 소속 회원교회 목회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야교회 유희동 목사,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목사, 연합장로교회 김재홍 목사, 애틀랜타 한인장로교회 백성식 목사, 조지아장로교회 조진영 목사, 조지아크리스찬대 조현성 교수, 한빛장로교회 이문규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교회 역사와 환경 속에서 교회 사역과 목회방향 등을 소개하며 격려와 조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홍 목사는 시니어 전문 사역자로서의 시니어 사역의 중요성을 나누었고

유희동 목사는 상담사역을, 최근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한인장로교회의 백성식 목사는 교회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병호 목사는 “미국장로교단은 좋은 신앙유산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을 지키면서 개혁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철 회장은 “교협이 회원교회들의 돌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지속해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협 주최 ‘부활절연합예배’는 오는 16일(주일) 새벽 6시 슈가로프한인교회(담임 최봉수 목사)와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윤수영 기자

세계 기독교, 아프리카·아시아로 이동

“탈서구화에 따른 신학적 성찰 뒤따라야”

세계선교통계 분야의 석학인 토드 존슨 박사가 “세계 기독교 인구가 남쪽으로 놀랍게 이동했다”면서 “이같은 이동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삶과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새로운 구성원들의 신선한 관점에 기초한 신학적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사람의 교회에서 열린 ‘글로벌 기독교(Global Christianity) 이해와 선교적 대응’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토드 존슨(Todd Johnson) 박사는 기독교의 역사, 세계의 종교, 세계선교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아시아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존슨 박사는 데이비드 버렛(David Barrette) 박사의 뒤를 잇는 세계선교통계 분야의 대표적 인물로, 세계 기독교 현황 통계(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2017, in the Context of 1900~2050)를 만들고 월드크리스천데이터베이스(World Christian Data Base)를 운영 중이다. 전 세계 기독교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기독교총람(Atlas of Global Christianity)의 저자로서 통계의 변화가 세계 기독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탁월하게 분석해 왔다. 그는 ‘미전도종족’ 개념을 창시한 선교학의 선구자인 랄프 윈터 박사의 막내 사위이기도 하다.

남쪽으로 이동한 기독교

토드 박사는 “지난 100년을 통틀어보면 그리스도인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해 왔다. 언뜻 보면 지난 100년 간 세계 기독교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결론을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는 200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주후 923년까지는 남반구(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다수였다. 그랬던 것이 그 이후부터 1981년까지 유럽이 앞섰다가, 이제 1000년 만에 다시 남반구에 기독교인이 더 많은 상황이 되었다.

1910년까지 기독교 인구의 66%가 유럽에 살았으나 2010년에는 25.6%로 줄었다. 반면, 1910년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2%가 아프리카에 살았지만 이후 급상승해 2010년에는 22%까지 올랐다. 북반구의 경우 1910년에는 모든 기독교인을 중 80% 이상이 이곳에 있었으나 2010년 그 수치는 40% 아래로 떨어졌다.

토드 박사는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지금도 매우 높다. 아프리카에서 수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하라 남쪽 부족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가파른 출산율은 아프리카의 기독교 성장세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드 박사는 또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하면, 아시아의 출산율이 더 높고 아시아는 여전히 인구의 회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금까지 회심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회심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아시아 기독교인들의 비중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기독교의 탈서구화 필요성

그렇다면 기독교의 남반구 이동이 세계 기독교의 삶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토드 박사는 “기독교는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진 신앙으로써, 독일과 같은 서양의 개인주의적 인 경향보다 중국인들의 공동체적인 경향에 더욱 가깝다. 우리가 그동안 개인주의적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작성한 교과서, 신학 서적, 역사서를 배우면서 우리 안에도 이미 개인주의적 신학적 기초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면서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종교로 처음 1000년 동안은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이 다수였고, 8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아진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난 400년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구 종교로 인식하는 틀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이들이 이같은 심도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적인 세계관이 성경이 묘사하는 삶의 방식과 어떻게 실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다”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각각의 문화가 전 세계 기독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감리교

회 화용 감독이 질문했듯이 ‘아시아 기독교의 미래가 바나나(독일인들의 훈련을 받은 중국 기독교인들처럼, 아시아 기독교인들이 걸으려는 노랑(동양)지만 속으로는 하얀(서양))가 될 것인지, 망고(중국의 세계관을 유지한 중국 기독교인들처럼,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이 걸도 속도 노란)가 될 것인지’ 묻게 된다. 만약 세계적 기독교의 몸을 이루는 새로운 구성원들의 신선한 관점에 기초한 신학적 성찰이 따르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인구 이동이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치앙마이 신학교 김대순 선교사도 “아시아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선교사와 지역교회 지도자들 모두 성육신의 원리(상황화)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상황화가 너무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가 너무 이국적으로 보이고 말았다”고 말한 바 있다.

토드 박사는 “모든 문화는 기독교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또한 벗어나갈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 탈서구화를 한다고 할 때, 우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다양한 신학적 기여가 가능한 모든 문호를 열어놓아야 하고, 이같은 은사들은 복음의 정신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문화마다 자신의 문화에서 기여할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서구 신학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서구 신학이 복음에 가장 부합하고 있다고 무조건 전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복음주의자로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복음의 이해를 풍성하게 하려는 노력과 서구 신학이 가진 신학적 맹점을 고쳐가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토드 박사는 기독교의 분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5년에는 교단 수가 55,0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232개국에 속한 교단들은 많게는 수 백만 명부터 적게는 100명 미만의 회원들을 가진 다양한 규모를 갖고 있다”면서 “물론 다양한 전통을 가진 다양한 교단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신학적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신학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분열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이같은 분열을 약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복음주의자는 분열주의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화해자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해도 자꾸 교단이 계속 늘어나 통계 리스트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선교 현황과 실천 과제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독교 전도가 불신자에게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85%가 넘는 기독교 전도활동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불신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선교사 파송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놀라운 것은 남반구 출신 선교사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을 향한 선교에 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미 기독교가 존재하는 곳으로 간다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힌두, 불교도와 접촉이 없다 △세계의 도시와 빈민가를 향한 선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복음이 전 세계에서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 △전도와 사회적 참여는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향후 기독교 선교의 실천 과제로 △교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먼저 앞세운다 △선교의 경쟁과 중첩성을 피한다 △세계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다 △세계 종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강화한다 △선교지의 주요 학교와 전통을 이용해 종교를 가르친다 △종교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와의 상호 작용을 강화한다 △공손함을 갖춘다 등을 제시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300 세계전문을 이루는 성령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발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0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앨버틴 지역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u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기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_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준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틴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찬양학교, 엑스포스쿨

이동준 담임목사


앨버틴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예배)
FAM예배 오전 11:30(청년예배)

박경호 담임목사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예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예수 부활하셨네



축부활

펠리세이드 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Palisades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8:30 AM	한국어 Korean
	11:00 AM	한국어 Korean
	1:00 PM	영어 English
기타	8:00 PM	수요예배
	5:30 AM	새벽기도회 월-토
교회학교	11:00 AM	유아유치부
	11:00 AM	유년부 (1~3학년)
	11:00 AM	초등부 (4~5학년)
	11:00 AM	중등부 (6~8학년)
	11:00 AM	고등부 (9~12학년)
	8:00 PM	중등부,고등부 성경공부



김성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6 Old Tappan Rd., Old Tappan, NJ 07675
Tel : 201-258-8383 / www.PalisadesChurch.org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 새신자들을 위한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얼바인 온누리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수요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7:30	중등부 오전9:15
2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세상속의 교회

세계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 오전 8시
주일2부 예배 : 오전 11시
EM예배 : 오전 9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7시
새벽예배 : (화~토) : 오전 6시



최운형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927 S.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8-1927
Email: worldmissionchurch927@gmail.com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인랜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inlandchurch.org

축부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갈릴리선교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하술에 있는 다윗왕 시대의 건물 유적과 당시 올리브 기름 짜는 장소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9)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북방의 수비수 하술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가나안 하술 왕 야빈의 수도였던 이곳은 당시에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 성읍이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시 가나안 북부의 주요 도시로 게데스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오늘날의 Tel Hazor를 성경에 나오는 하술로 생각할 수 있다. 하술의 뜻은 뜰, 정착촌이라는 의미로 북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쪽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주요 대로의 통로에 놓여있어 고대에도 군사로 대상로가 있었던 것이다.

하술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진격 소식을 듣고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의 성은 불타버렸다.(수11:1-12)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지역의 도시 중 불태워진 도시는 하술뿐이다. 후에 여호수아에 의하여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수19:32, 35, 36) 납달리 지파가 점령을 못하였

다. 사사 시대에 이르러 야빈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가나안 왕의 왕권 중심도시였으나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에 의하여 점령되었다.(삿 4: 2) 왕국 시대에는 게셀이나 므깃도와 같이 솔로몬의 병거성이 웅장하게 건립되었다. 이곳에서 솔로몬의 마병대가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출동하여 근처에 있는 가나안을 제압하고 북방의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디글랏 빌레셋에 의해 성이 함락되었으며 성안의 백성들은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왕상9:15, 왕하15:29)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베나민 자손 중 일부가 거주하기도 하였다.

하술은 고대 시대에 중요한 무역로(Via Maris)였으며 군대 이동 통로이기도 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군대와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의 충돌 장소이기도 하였다.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가장 북쪽의 병거 성으로 북방에서 밀려오는 이 민족 침입을 저지해야 하는 막대한 책임이 부여된 곳이다.

하술의 고고학적 발굴

1875년 아랍어로 “엘쿠다시”라 불리웠던 이 유적지는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하여 알려지고 1928년에 가스팅이라는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하여 부분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는 1955년부터 1958년까지 그리고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갈 야딘에 의하여 구체적인 발굴이 이루어져 도시 역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 해발 225m-230m에 위치한 하술은 야빈이 통치할 때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있었고 전체 크기는 80 헥타르나 된다.

야딘이 발굴할 때 성문의 흔적이 므깃도의 솔로몬 성문과 기초가 똑같은 것을 보고 이 두 성문이 솔로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스라엘선교회

몬에 의하여 세워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문과 성벽 등이 발굴되어지고, 아함의 물 저장고 (총 깊이 38m- 이 저수지는 19m의 수직 수갱으로, 넓고 경사진 터널 형태로 25m를 더 파내려 갔다. 위층 계단에서 바닥까지는 총 123개의 계단이 있다.)가 발견된다. 1990년 미국의 컴플텐스 대학교와 히브리 대학교가 공동으로 록펠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이갈 야딘에 이어 발굴을 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Area A부터 Area P까지 다양한 유적층이 나타나고 있다.

청동기 시절(주전 18세기-14세기)까지의 하술 유적지가 최근에 발굴을 통하여 모습을 드러냈다. 주전 19세기-18세기에는 이집트의 침입으로 이집트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었고, 도시의 이름은 “엘 아마나”라 불렸다.

요즘은 하술 왕 야빈의 궁전이 벤토르 교수에 의해 발굴되고 있다. 아직도 발굴이 진행 중인데 궁전의 동쪽 입구 길이만 39m이고 벽의 높이도 2.4m가 넘는 것으로 궁전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곳에서 상아 유물과 신의 형상으로 보이는 청동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발견된 문서는 하술이 가나안의 강력한 왕권도시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궁전은 주전 1230년 경에 화재로 파괴되고 1m에 가까운 잿더미에 덮였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

도시의 서쪽에서 주전 9세기에 지어진 성채가 발견되었는데 이 성채는 주전 734-732년에 앗시리아에 의하여 파괴된 성채이다. 이곳에서 현무암으로 만든 정방형의 기초석이 발굴되었고, 동물들의 뼈들과 용기들이 발견되었다. 이곳에

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의 역사는 이후 솔로몬의 병거 성(솔로몬 사후 200년 지나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 때 앗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점령하였다. 왕상6:15, 왕하15:29)을 거쳐 아함의 도시가 되었던 것이 발굴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다. 주전 732년 앗시리아에 의해 점령이 되고 주전 7세기에서 주후 2세기까지 상부 도시가 건설되는데 주전 147년 마카비 정권의 도시 재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는 점점 흩으로 뒤덮이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하술은 사라졌다.

하술의 교훈

갈릴리 바다와 북쪽 국경지대를 이어주는 중간지대에 위치한 하술은 지금도 90번 도로의 주 통행로 선상에 있어서 순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기인 겨울에 이곳에서 보는 헤르몬 산의 설경은 일품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국립공원 중의 하나로 국립공원 티켓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고대 유적지다. 이스라엘에는 총 70군데의 국립공원이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 경관과 역사적 유적지, 성경적 배경이 되는 유적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역사의 현장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둘러볼만한 곳이다.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수11:10)라는 거대도시 하술의 파괴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장면이다. “사람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 하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허사로다” 하는 말씀이 새삼 생각나는 곳이다. (계속)



솔로몬 시대 및 북이스라엘 시대 유적지

“예 수 부 활 하 셧 네”

벤츄라교역자협의회

회장 : 승광철 목사
총무 : 이정구 목사

회원교회

- 벤츄라 감리교회(김민영목사)
- 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
- 벤츄라카운티 장로교회(이정구 목사)
- 새생명 교회(승광철 목사)
- 씨미밸리 한인교회(반재근 목사)
- 옥스나드 한인교회(김진구 목사)
- 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남재현 목사)
- 주님의 교회(오정택 목사)
-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조인 목사)
- 카마리오 커뮤니티한인교회(권혁래 목사)
- 카라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담임목사

교회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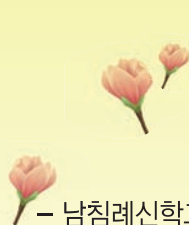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소 및 전화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물결



학장 박 성 진

- 남침례신학교 6대 신학교
- 100% 한국어
- 1-20발급
- 저렴한 등록금 장학혜택
- 박사과정(인턴십비 코스로 진행)
- 교육 목회학 박사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석사과정(100% 온라인)
- 온라인 목회학석사
- 신학목회석사
- 신학연구석사
- 신학연구상담학석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issouri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의 사랑

한의원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 Free)

신년맞이 패키지
(8인용 CD + CD봉투 + 라벨 포함)

\$160 (디자인 포함)

Stand X-Ru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 등 무료 상담에 드립니다.

문의 상담 213-321-0302 Connie Kim (김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팔짚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 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 시내· 타주 이사· 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지속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 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장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 대상작

이스라엘신학 정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하여(3)

지난해 10월 기독일보가 주최하고 UBM교회가 주관해 열린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재환 학생(게이트웨이신학교 M.Div.)의 글 <이스라엘신학 정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하여>를 네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이스라엘신학으로 인한 유용성

둘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의 목적은 선택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출 19:5-6). 이것은 주께 속한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분한다(출 19:5). “거룩한 백성”은 그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구별된 나라를 뜻한다. 만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열방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표현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형태의 나라가 될 것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권력과 묵인에 의존하는 정치인들이 아닌 아웨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의존하는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임무이자 세계 민족들 중에서 그들만의 구별된 특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셋째,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방향 정립에 대하여 하나님의 첫 백성에게 빚지고 있음을 밝히며,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이 장차 해야 할 역할과 관련시켜 그것을 설명한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총만함이라요”(11:12). 하나님께서 자신의 첫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신비

로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먼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11:25).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11:29). 하나님의 계획 성취에의 참여가 지향하는 미래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인 유대민족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감추인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독특한 역할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유대교와 이스라엘은 반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교회를 지탱시키는 거룩한 뿌리이며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라는 그 원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장엄한 속성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이자 피조물과 역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구원 역사가 일정한 순환과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셨다. 비록 그들이 역사 속에서 때로는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과 소원해지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을 경험하는 등 복잡하고 암울한 역사를 거치면서 결국 반 기독교적인 유대교의 형태를 띄게 되었지만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종착역이 아닌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한 역사적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분의 구속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사실이 성경



최 재 환 학생
게이트웨이신학교
M.Div. 과정

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신학은 잃어버렸던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되찾게 도와줄 것이다. 이 신학을 통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으신 계약과 약속의 효용성을 다시금 확인하여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재확증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참여하는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다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 즉 언젠가는 자신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모든 열방들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운 주권 아래 하나로 묶어줄 본연의 임무를 재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의 사역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자신과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와 중재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다시 한 번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법을 온 세계에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이상적인 모델로써 다시 한 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그리고 이 둘이 상응하는 것을 항상 불완전하게 이해했다. 이스

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과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식하시는 수준까지 명쾌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듭 계시하였으나 성서 가운데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숨겨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애초에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시대별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보편적인 방식은, 하나님에 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선의 모델로 삼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보다 개인적인 차원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삶에 근거하여 만들어낸 매우 단순하면서도 이상적인 모델만 지향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신앙생활이란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축소하고 동시에 매우 한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현재 교회 안에서 각종 문제들이 안 밖으로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개인적인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에만 치중하고, 공동체적인 선이나 이웃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무미건조한 기독교 종교인의 양산만이 이루어지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의 본질인 창조 원형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다. 잘못된 기독교 신앙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신학은 하나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먼저 이스라엘신학 안에는 아웨 하나님의 주요 목적이었던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헌신과 공약이 내재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전통을 헬라 철학의 위대한 고전적

전통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정의는 분명히 유대적이고 아웨적인 관심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끊임없이 정의보다는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헬라 전통 속에는 그 어느 것도 분배적 정의를 향한 아웨의 열정에 비견될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정의가 결여된, 질서를 중요시하는 헬레니즘적 요소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헤브라이즘에 기초한 아웨적 열정의 회복이다. 이 아웨적 열정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열방 즉 온 나라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열정의 회복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요소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세계 안에서 중재자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리인들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 대리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때로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지를 알아야지만 행동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마음과 의지가 약해서 본래의 의무를 알게 되었을지라도 좀처럼 바로 이행하지 않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현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에서는 말씀의 실천을 부르짖으나 교회 밖에서는 그 실천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신학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임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의 회복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개인 및 지체 그리고 공동체로서, 아웨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구원의 도구로서 가까이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나아가 온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존재로써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적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계속)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TI(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부),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이렇게 준비해야 교회가 산다

권혁기 | 쿼란 | 327쪽

하나님 말씀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예언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저자는 성경의 예언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살피면서 깨어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무기

E. M. 바운즈 | 오테용 역 | 베다니 | 2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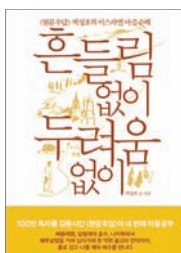
〈기도의 능력〉으로 유명한 저자가 '기도의 실제'를 가르치는 책이다. 평소 매일 3시간씩 새벽에 기도한 후 하루를 시작했고, 설교한 대로 묵회와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했던 저자의 기도생활은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다.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백성호 | 아르테 | 352쪽

한 일간지 종교전문기자로서 칼럼을 통해 일상의 구도자로서 내면 탐색을 이어온 저자의 이스라엘 방문기. 신자로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속에 숨겨진 깨달음을 구하는 탐구자적 자세로 나사렛 골목과 갈릴리 호숫가를 걷는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으로 예수의 말씀을 파고들자, 숨어있던 의미들이 벽을 깨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영성 훈련의 네 가지 길

조연형 | 홍성사 | 112쪽

2천 년 기독교 역사 속 영성 훈련의 주요 네 가지 길을 정리했다. 저자는 한 국교회 영성을 위해 미국에서 10년간 영성신학을 갖고 닦았다. 거룩한 독서(렉시오 디비나)와 짧은 경구를 반복하는 예수기도, 시간을 정해 드리는 성무일도, 영성일기 등 네 가지. 저자에 따르면 영성훈련은 '나'라는 주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 타인'이라는 객체에 초점을 둔다.



REVIEW

“편안함 추구하는 교회, 주님의 마지막 명령 외면”

청년 시절 인도 콜카타에서 3년간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선교회'를 도운 경험을 바탕으로 '육신이되신 말씀(Word Made Flesh)'이라는 단체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평생 이어온 저자가 전하는 영성 이야기. 21세기에 십자가를 목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피부에 와 닿게 전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60~70년 전 실재했던 모습들이지만, 아니 지금도 밤이면 서울역 지하보도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청결하고 정돈되고 아름답고 세련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입을 옷도 쉴 집도 없는 사람

들'의 현실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영적으로 '눈 먼 사람'들이 된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주의를 끌고 붙잡고자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계발의 공식을 만들어 복음을 조작해 버렸다”며 “특정한 기도 방법, 복음주의의 요구 사항, 개인 경건의 형식으로 인해 우리는 혼란에 빠지거나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때로 그것들은 너무 복잡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①자만과 교만 ②개인주의와 독립주의 ③무절제와 과잉 ④권력과 통제 ⑤승리주의와 반향과 저항 등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인들' 5가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의 영성
크리스토퍼 휴어츠 | 양혜원 역
IVP | 218쪽

이 거인들을 쓰러뜨릴 ①겸손 ②공동체 ③단순함 ④순종 ⑤깨어짐 등 '단순한 다섯 돌맹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책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읽다 보면 우리가 여전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조금씩 눈이 떠지는 것이다.

고난주간이라 더 와 닿았던 내용은, 저자의 경험담이다. 대학 4학년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목록을 받았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32인치 사이즈의 바지 한 벌이 전부였다. 저자 자신도 바지가 한 벌 필요해 44달러짜리 카키색 바지

를 주문하려던 참이었기에, 그를 위해 월마트에서 14달러짜리 바지를 하나 사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움직이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잠 19:17)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드릴 바지는 월마트에서 사고, 나를 위해서는 그것의 세 배쯤이나 비싼 바지를 주문하려 하고 있었다!” 저자는 깨어짐을 경험했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바지를 선물하기로 했다.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바꾸어 버리지 않았는가?”

“예수 부활하셨네”



남가주 한인목사회

T.(310)404-6219



회장
김영구 목사



수석 부회장
샘 신 목사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주님의 빛 교회

주님의 빛 교회 사역 목표

1. 예배를 통한 경배와 교제
2. 전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
3. 제자 훈련을 통한 성숙
4. 성경적 상담을 통한 치유
5. 가정 교회를 통한 사랑의 실천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청년 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소 및 전화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하나님 불어넣으시는 성령 외면한 채 세상의 정신으로 질식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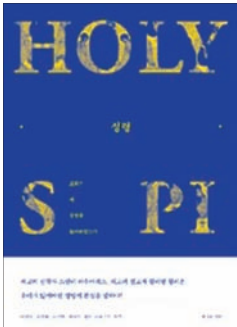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성령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에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 필자는 의문스럽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요즘 교회의 성령은 존재의 변화보다 삶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령은 성도가 예수로 인해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보다 거룩하게 살기를 도와주는데, 오늘날 교회의 성령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신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어 우리가 의인이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각인시키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해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성령은 여전히 신비주의에 휩싸여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세상의 정신에 갇혀 번영신학과 함께 신분상승과 인생역전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비취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끄시고 주님의 승천 후 제자들을 위해 보내신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 책은 최고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와 최고의 설교자 윌리엄 윌리엄스의 공동 저작으로, 현재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님의 본질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폭넓은 성령님의 사역을 다 다루지는 않지만, 이 책은 이 시대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준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그분은 지금도 교회 위에 운행하길 원하시는데, 이 시대 교회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 경고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었다. 1부 '삼위일체: 성령에 대한 바른 사고'에서는 성령에 대한 역사적 회의론을 통해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다룬다. 또한 오순절 신학의 성령은 체험주의적이고 열광적이며 신비적이라는 곤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 가르쳐 주고, 성령이 어떻게 복음서의 구성 및 정화와 상호작용하는지 살펴서 성령의 특성



스탠리 하우어워스
윌리엄 윌리몬
김기철 역 | 복있는사람 | 152쪽

을 드러낸다.

필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생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과, 그분의 몸 위에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부분에 관심이 갔다.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례와 십자가 지심과 승천까지, 그분의 삶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분의 몸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내면만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이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그분은 교제하는 영으로 '삼위'가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는 분임을 증명한다. 아울러 성령은 예수의 기도를 돕는 분이셔서,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듯 우리 또한 그렇게 도우신다. 그리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성령은 늘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의 극진하고 한결같은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살게 한다.

2부 '오순절: 교회의 탄생'에서는 예수의 몸 위에 임한 성령께서 이 시대 교회 위에도 임재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통해 세상을 위한 몸이 되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는 증인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여기서 교회는 자기만족을 넘어서는 것이며, 세상에 침투하여 경건과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는 교회에 계속적으로 활력을 부여주고 진리를 계시해 준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령의 본질은, 자기만족과 현실에 빠진 교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3부 '거룩함: 성령 안의 삶'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에 대해, 개인이 성취하는 업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비추는 것으로 설명한다. 성령은 이

거룩함을 수행하는 분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도와주셔서 공동체로 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서로가 화해하고 우정으로 살도록 돕는 분이시다. 성령을 함입어 산다는 의미는 누구보다 우월해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양보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말한다. 또한 거룩해 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4부 '마지막 일: 종말론적 백성의 삶'에서는 성령이 세례의 물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셨듯, 죽음의 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을 살게 하신다고 말한다. 또한 성령은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에서도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뭔가 왜곡된 세상에서도 온전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며, 예배자로 증인으로 인도하신다고 한다.

필자가 볼 때 이 책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두 가지로, 하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하는 시대도 없다. 이미 타락한 정권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이제는 교회 차례인 것 같다고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학자의 말도 있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공동체에 거룩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거룩은 단순히 구별이 아니라, 폭력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거룩은 교회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여 사사로운 곳이 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우정과 사랑을 베푸는 곳이다. 거룩은 교회를 통해 그 마을이 신실한 성읍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을 내쉬는 분이신데, 세상의 정신으로 그 숨이 질식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작은 책을 통해, 교회를 향하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을 생각해보길 원하는 자들에게 일독을 권해본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민족 지도자 남궁억 선생 일대기 만화로 출간



한서 남궁억
김재욱 글, 최현정 그림
KIATS | 164쪽

지난 5일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민족 지도자이자 크리스천인 남궁억 선생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 <한서 남궁억>이 출간됐다. 식목일인 4월 5일은 일제시대 무궁화 묘목을 보급해 민족의 혼을 깨운 남궁억 선생의 서거일이다. 만화를 발간한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 측은 지난 1일 감리회의 '무궁화 주일' 지정을 기념해 이번 만화를 발간했다. KIATS는 이 외에도 남궁억 선생이 직접 쓴 글을 엮은 <무궁화 선비 남궁억> 한글·영어판, 남궁억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보리울의 달> 등을 펴낸 바 있다.

55세에 보리울로 낙향한 남궁억 선생은 남은 생을 교육과 무궁화 운동에 바쳤다. 그는 30만 주의 무궁화 묘목을 심어 전국에 배포했다. 그러나 민족 사상을 주입한다는 이유로 일제가 이를 방해하자, 뽕나무 묘목에 섞어 무궁화를 배포했다.

이 외에도 무궁화 지도를 담은 저수분(자수 놓을 모양을 종이나 형겅에 그려 놓은 도안)을 보급하고, 무궁화와 관련된 여러 노랫말을 지어 보급하기도 했다.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보급 운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라나는 강인함과 끈기를 잊지 않고 살리는 것이었다. 무궁화는 '피고 또 피어 영원히 지지 않는 꽃' 또는 '영원 무궁토록 빛나 겨레의 환한 등불이 될 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무궁화' 명칭은 '목근'이란 한자음이 변한 순우리말이다. 영어로는 'Rose of Sharon'인데, '성스럽고 선

택받은 곳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설악산 유리봉 정상에는 남궁억 선생의 제자들이 세운 작은 비문이 자리하고 있다.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나무 밑에 묻어 거름이나 되게 하라.' 남궁억 선생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무덤을 만드는 것조차 과분하게 여겨, 무궁화 나무의 밑거름이나 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남궁억 선생은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고 신앙으로 나라 세우기를 위해 힘쓴 민족의 선각자이다. 고종의 영어통역관을 시작으로 경상도 성주 목사와 강원도 양양 군수로 관직 생활을 하였으며, 독립협회와 대한협회를 조직하고 상동천년학원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에도 힘썼다.

56세에 강원도 홍천 모곡리로 낙향한 뒤 모곡학교를 지어 교육과 복음전파, 그리고 독립운동에 남은 여생을 바쳤다. 모곡학교 학생들에게 "독립 이후의 일을 계획하라"고 가르치며 교육자료인 교육월보, 가정교육, 조선문법, 조선어보충과 역사서인 동사략, 조선이야기를 저술하여 잊혀지는 민족의 혼과 사상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쓰러져 가는 국가의 운명에 자신의 삶을 바친 남궁억 선생은 국사교육과 무궁화 보급운동 중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병고에 시달리다 1939년 4월 5일 77세를 일기로 소천받았다.

특히 남궁억 선생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찬송가 작사가로 잘 알려져 있다. 일제 지배가 한창이던 1922년 어느 가을날, 남궁억 선생은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변치 않게 하시니 감사하거니와, 아무리 혹독한 왜정 하일지라도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마 9:37)"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랫말을 지었다고 한다. 이대용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r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터링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나성임마누엘교회



최순길 담임목사

복음의 향기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축부활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주일)

주소 및 전화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el: (714)743-0141 email: skchoi1221@gmail.com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은혜와평강교회



곽덕근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소 및 전화

92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el: (818) 894-9266

평화교회



김은목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주소 및 전화

2538 W. Pico Blvd. LA, CA 90006
Tel: (213) 251-9191
email: thepeace0691@gmail.com

AV 인텔로밸리 한인교회 연합회

- 두드림 교회 (안세광 목사)
- 랭케스터사랑교회 (반종규 목사)
- A. V 한인교회 (박정일 목사)
- 새마음 교회 (유현준 목사)
- 행복한 교회 (전현숙 목사)

가정을 세우는 CMF 선교원



김철민 장로

예배시간 안내

WWW.GodFamily.com
cmfm@cmfm.org

주소 및 전화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el: (562) 483-0191

Interview with Pastor Yoon Lee:

Embracing the Diversity, and Transience, of an International Congregation

BY RACHAEL LEE

"No matter how short or how long, we want to be a family for you."

This slogan captures Pastor Yoon Lee's desire for every person who visits and attends Yoido Full Gospel Church's English ministry (YEM), located in Seoul, South Korea.

YEM has been Lee's church family since he moved to Seoul in 2012. But when he first took up the position to lead the YEM congregation, he found that building that community was vastly different from what he had experienced in America. Born in Portland, raised in Chicago, and attended seminary in Southern California, Lee had attended and served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for most of his life, where most of the members were Korean American and were settled down in their respective cities.

Lee found upon coming to Seoul that the congregation at YEM was the complete opposite. Members cam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many stayed only for short-term stints of a few months to a few years. Those who would stay for several years were few and far between.

"Those were the two things that caught me off guard – the demographic, and the transience," Lee recalled.

"But the first church [ever] was

like YEM," he added. "People from all different nations, gathering in one place for a short period time, and then God sent them out. Once God revealed that to me ... I started embracing that."

YEM consists of some 250 members, many of whom have little in common, from the native Koreans, the Korean expatriate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and the non-Korean members from countries such as Malaysia, the Philippines, Columbia, Ghana, and Guatemala, to name a few.

"What God is doing is beautiful, and I'm getting a small taste of it here."

Lee says this lack of common ground allows the members to skip the small talk and "get to the important stuff really fast."

"You can't do small talk anymore," he said. "You just get down to what is going on in your life, and that's refreshing."

"We have people from the States, from Columbia, from the Philippines, from Ghana. And we just think, 'Okay, what's something that we have in common?' We love the Lord. Okay, let's start there," said Lee. "It becomes very

beautiful when you just get down to the most important thing."

Meanwhile, embracing the transient nat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eant breaking some unspoken "rules" that pastors followed back in America, Lee said.

For instance, while many pastors in the States would implement months-long membership classes in hopes to ensure a healthy base of committed members in the church, such a long-term commitment was often difficult or meaningless for those who may have come across YEM during the second month of their six-month-long study abroad program, for instance.

Lee felt that keeping such a commitment simply for the sake of doing so came at the cost of being able to provide a community that members could belong to as soon as possible in the midst of the transient, fast-paced culture. Instead, YEM focuses on getting people plugged into cell groups as early as their first week at church, and focusing on the train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cell group leaders to discern whether certain individuals may need additional help in understanding the gospel, or if they might cause others to go astray.

While keeping in mind that the members may soon leave Seoul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or take on another work stint at another nation, Lee said he con-



Yoon Lee (left) and Samuel Han (right) serve at Yoido Full Gospel Church's English ministry. Lee began serving as the lead pastor of YEM in 2012. Han serves as a staff pastor in YEM.

siders each of the members as potential future partners.

"These are not just members while they're here, but these are partners in the gospel," Lee said.

Lee is hopeful to see more and mor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ising up to take on leadership positions within the church. No matter how short or how long, and regardless

of their ethnic background, Lee says, he has been investing in the members in his church family in hopes to cultivate leaders abroad and in Seoul.

"Honestly, it's been a big blessing," Lee said. "I really had to come out to Korea to experience the world in a sense. What God is doing is beautiful, and I'm getting a small taste of it here."

SOLA Conference Organizers Hope to 'Champion' the Doctrines of the Reformation During Fifth Annual Event

This year's conference to be held under the theme, 'Here We Stand: Always Reforming'

BY RACHAEL LEE

For the fifth time, the annual SOLA Conference for collegians will be taking place this spring, from April 28 to 29 at New Life Community Church in Artesia, CA.

The conference, which has drawn hundreds of college students each year, is unique in that it is hosted and organized through a partnership between several local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This year, the conference is organized by pastors and leaders from nine churches, including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Bethel English Church,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Crossway Community Church, Good News Chapel, Good Stewards Church, Gospel Life Mission Church, New Life Vision Church, and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This year's conference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Here We Stand: Always Reforming," in commemoration of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Our identity as a network and movement is shaped around the 5 SOLAs of the Reformation, and we didn't want to miss this opportunity to explicitly champion these amazing doctrines," said Michael Lee, the executive pastor of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We don't believe there is a better message to offer collegians than the call to live under the authority of scripture alone, to rely on Christ, grace, and faith alone, and to live for the glory of God alone."

Different aspects of the 'sola' themes — grace alone, scripture alone, and glory to God alone — will be explored during the main

sessions, which will feature speakers such as Joshua Harris, author and preacher; Ryan Kwon, the lead pastor of Resonate Church; and Steve Bang Lee, the college and teaching pastor at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While some seminars will touch upon the Reformation theme as well — such as one titled, "How the Protestant Reformation changed the world" — many will be on more specific topics such as struggling with shame as Asian American women; gender identity and the Christian response; choosing to be committed to a local church; and what evangelism and missionary living may look like in a "post-Christian" society; among others.

Organizers expressed hopes that the conference would comfort, inspire, and challenge college students as they reflect on the doctrin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what the Protestant Reformation meant at that time, and what it means for current day Christians.

"Personally, I would love our students know that though they may feel part of a marginalized faith as our world continues to change, they're not alone. They're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who have walked before them," said Steve Bang Lee. "I pray that gives them a sense of strength and peace to know that they're not part of some isolated religious movement, but they're part of an unstoppable Kingdom that Jesus is moving forward."

"I also would love for the students to walk away with a sense of inspired responsibility that in the blink of an eye, they will be the spiritual leaders of their generation, and that the things they sow in to in the here and now, will

have a ripple effect in the then and there," Lee added.

The SOLA Conference has grown in a number of ways over the years. For one, the number of churches involved in the organizing process has grown, from four churches in 2015, seven in 2016, and nine this year.

The conference has also grown to become an entity beyond the conference itself: the SOLA Network.

Led by a team of pastors from the nine local churches which organize the conference, the SOLA Network offers resources online through blog articles and videos through which Christian leaders offer their insights. The SOLA Network will also be hosting another conference in June specifically for young adults, called SOLA Nexus,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And in its fifth year, the SOLA Conference has become a known, regular gathering that many college students now look forward to each year to reexamine and rejuvenate their faith, according to Stanley Ng, the executive and college pastor at Bethel English Church.

"The SOLA Conference has been bringing multiple groups of collegians from multiple parts of Southern California to worship at one place, all in One Name," said Ng. "It can be easy for students to find themselves back into the general routine: the repeating aim for a decent grade, the part-time work hustle, the balance of fun and friends — all that eventually overwhelms us."

"SOLA is the annual pitstop for collegians to engage with the gospel with other collegians," he continued. "It's an opportunity to connect, pray, and fellowship."



About 300 members of various local churches gathered at One Family Chapel on April 9 to pray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Hundreds in the South Bay Region Gather to Pray for North Korea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A prayer gathering on behalf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ook place in the South Bay region of Southern California. Some 300 members of various churches attended the gathering on April 9 at One Family Chapel. The event featured messages by several pastors, testimonies of refugees, video screenings, and worship, but the event focused primarily on prayer.

Peter I. Sohn, the president of Until the Day Mission (UTD), preached a message on 2 Kings 6:15-18, and called on Christians to "weep and pray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in North Korea who are struggling in the worst human rights conditions, that God would intervene in their lives."

A North Korean refugee known by her last name, Choi, shared a testimony during the event. Choi, who currently lives

in Southern California, crossed the Tumen River with plans to temporarily stay in China to earn and send money to her family, but it was there that she met a Korean missionary whose ministry headquarters are located in Seattle. She entered the U.S. as a refugee with this missionary 10 years ago, and has been living in America since.

At the event, Choi also read a letter she wrote to her daughter 10 years ago, sharing the pain of separated refugee families.

Those who attended prayed that the dictatorship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would end; that members of the underground church and those who are imprisoned in political prisoner camps would be freed; and that a peaceful reunification without war would occur.

Attendees also prayed that the Korean church would awake and be a driving force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as they repented for the lack of action and indifference from the Korean church.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6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ex Discrimination’ Can Includ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Federal Court Rules

BY RACHAEL LEE

A federal appeals court decided on April 4 that a workplace non-discrimination clause in a civil rights law offers protections to LGBT employees, ruling in favor of a woman who claimed that a community college was discriminatory in denying her employment.

The ruling came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 with an 8-3 vote among the judges, and stated that sex discrimination can also includ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n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religion, sex, or national origin.”

“We conclude today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s a form of sex discrimination,” Chief Judge Diane P. Wood wrote in the majority opinion.

Kimberly Hively filed the lawsuit against Ivy Tech Community College. She had applied to several full-time jobs at the school and had also been working there part-time. However, she did not get offers for any of the

full-time positions, and the school did not renew her part-time contract in 2014.

According to Lambda Legal, a legal group which has been representing Hively in court, her employment was denied after “she had been seen kissing her then-girlfriend in the parking lot of the school.”

The community college denied the claims, but said it will not pursue the case to the Supreme Court.

“The college denies that it discriminated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basis of her sex or sexual orientation and will defend the plaintiff’s claims on the merits in the trial court,” Jeff Fanter, the senior vice president for communication and marketing at the community college, was quoted as saying by The New York Times.

In the majority opinion, Wood stated the incident can be seen as sex discrimination because “[a]ny discomfort, disapproval, or job decis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complainant — woman or man — dresses differently, speaks differently, or dates or marries a same-sex partner, is a reaction purely and simply based on sex.”

Judge Diane Sykes, writing for the dissenting judges, said that the comparison the majority judges made is insufficient to make that case.

“The court’s reasoning essentially distills to this: If we compare Hively, a homosexual woman, to hypothetical Professor A, a heterosexual man, we can see that Ivy Tech is actually disadvantaging Hively because she is a woman,” Sykes wrote in the dissent.

“As a test for isolating an actual case of sex discrimination, that way of framing the comparative question doesn’t do the trick,” she continued. “Simply put, the comparison can’t do its job of ruling in sex discrimination as the actual reason for the employer’s decision (by ruling out other possible motivations) if we’re not scrupulous about holding everything constant except the plaintiff’s sex. That includes sexual orientation.”

Meanwhile, though the college said it would not appeal to the Supreme Court, some legal experts believe the high court may address the issue, as similar cases have been ruled on in different ways in other federal courts across the country.

Neil Gorsuch Sworn in as Supreme Court Justice

Gorsuch’s confirmation brings a conservative, Protestant addition to the high court

Judge Neil Gorsuch was sworn in as the 113th Supreme Court Justice on Monday, filling a seat that has been vacant since the passing of the late Justice Antonin Scalia in February of 2016.

“I am humbled by the trust placed in me today,” Gorsuch, 49, said at a swearing in ceremony at the White House Rose Garden. “I will never forget that to whom much is given, much will be expected. And I promise you that I will do all my powers permit to be a faithful servant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is great nation.”

“Justice Gorsuch, you are now entrusted with the sacred duty of defending our Constitution,” said President Donald Trump. “Our country is counting on you to be wise, impartial and fair, to serve under our laws not over them, and to safeguard the right of the people to govern their own affairs.”

Gorsuch, a member of an Episcopal church, will be the only Protestant Supreme Court Justice, as five are Catholic and three are Jew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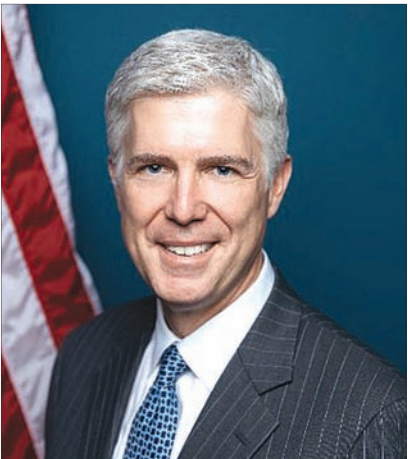
He is also known to be a conservative judge who has ruled in favor of religious freedom during his career on the Federal Court of Appeals in Denver.

His confirmation was a conclusion to a long process marked by political battle. Democrats had attempted a filibuster against his confirmation by ensuring he receives less than the formerly required 60 votes to be confirmed. However, Republicans blocked the move by using the “nuclear option” to change the rules in Senate and allow a simple majority of the votes to receive the confirmation.

Gorsuch was confirmed by the Senate with a 54 to 45 vote on Friday.

“As a deep believer in the rule of law, Judge Gorsuch will serve the American people with distinction as he continues to faithfully and vigorously defend our Constitution,” Trump said on the day Gorsuch was confirmed.

Among the cases that Gorsuch will hear during his first week on the bench will be one involving a Luther-



Neil Gorsuch was sworn in as the 113th Supreme Court Justice on April 10. (Photo: The White House / Public Domain)

an church in Missouri that operates a preschool and day care. The church applied to participate in a state program which provides resources to help schools reuse tires to resurface playgrounds and make them safer. However, the church was denied the program, and was told that a state law prohibits the state from funding churches.

Two Coptic Churches in Egypt Bombed in Terror Attacks, Killing Some 44 and Injuring More than 100

Dozens were killed and more than 100 were injured in two separate bombing incidents that occurred at Coptic churches on Palm Sunday.

The first bombing attack took place in the morning at St. George’s Church in Tanta, which is located north of Cairo. According to Morning Star News, about 27 were killed during this incident, and about 78 were wounded. Reports say a bomb was planted under one of the church seats.

In the second incident which occurred several hours later, a suicide bomber detonated himself when he was stopped by security guards at St. Mark’s Cathedral in Alexandria, leading to the deaths of some 17 people. About 48 others were wounded.

The twin bombings mark the deadliest attack against Christians in Egypt in decades, reports say.



St. Mark’s Cathedral, located in Alexandria, were among the two churches that were bombed on Palm Sunday (April 9) of 2017. (Photo: Public Domain)

However, Christians have been specifically targeted in terrorist attacks in the country in the last few months. Two Coptic churches were bombed last Christmas, killing 24 and wounding 50.

“Christians are — whether Coptic Christians or Catholics or any other Christian — a target these days for terrorists,” Joseph Ghabour, the deacon of public relations at the Coptic Orthodox Church of St. Mark in New Jersey, told Baptist Press.

“We pray for all those who hate us and we ask that God provide His guidance to them to enlighten their hearts and minds to know the right way,” he added.

Soon after the attacks, the Islamic State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m. Egypt’s President Abdel-Fattah el-Sisi also declared a three-month-long state of emergency in the nation on the same day, which would allow the government to monitor communication, restrict movement or

gatherings, and deploy officials for enforcement, among other actions. The Egyptian parliament must approve the state of emergency within seven days.

The attack was condemned by leaders worldwide, and many expressed their solidarity and intent for prayer on behalf of the loved ones of the victims.

Oklahoma Senator James Lankford called the attacks “horrible,” and added, “Anti-religious and anti-Christian violence is alive and well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the world.”

“Radical Islamists kill Christians because they are Christians; Yezidis because they are Yezidis; and different Muslim sects because they believe in a different brand of Islam than them. The right to practice any faith, or have no faith, should be a fundamental human right of all peop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always stand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who seek freedom of conscience and assembly,” said Lankford.

“Our thoughts and prayers go out to the Christian families affected by these deadly attacks,” said William Stark, the regional manager of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Stark added that there is a need for “decisive action” by authorities.

“No one should have to fear senseless violence like this for simply attending a church service,” Stark said. “These bombings represent the second and third church bombings Egypt’s Christians have had to endure in recent months. Action must be taken by Egypt’s authorities to secure the country’s Christian communities and their places of worship, especially as we enter Holy Week. Unless decisive action is taken, attacks like these will likely continue.”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오픈뱅크와 라디오코리아 아침마당이 함께하는

사랑의 크루즈

한인사회 최초로 선보이는 최대 규모의 나눔 프로젝트!!

가족과 함께 떠나는 무료 3박 4일

멕시코 엔시나다 크루즈 여행 (7월 7일 출발)



바쁘고 힘든 이민생활을 이어가는 한인 가정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나누기 위해 오픈뱅크가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응원합니다.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오픈뱅크의 약속이 이번 여행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뜻 깊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청 대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사연을 편지에 담아주세요. 가족 여행을 한번도 떠나지 못한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애뜻한 사연을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으로 보내주시면 1차 선별 후, 개별 방문의 절차를 거쳐 최종 30가정을 선정하여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모두 무료로 사랑의 크루즈에 모십니다.

신청 방법

우편 참여 주소: Radio Korea
(아침마당 담당자 앞)
3700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카카오톡 참여: radiokorea1540
홈페이지 방문: www.radiokorea.com



다양한 프로그램

라디오 코리아 아침마당 진행자 김형준씨와 우정아씨 및 사회 저명 초청 강연자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신청 날짜

2017년 4월 21일 사연 신청 마감
2017년 4월 24일~28일 1차 선별 가정 방문 인터뷰
2017년 5월 1일 30가정 최종 선정



푸짐한 경품

여행하시는 동안 선상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푸짐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나눔 이벤트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김형준씨와 우정아씨, 그리고 엘리트 투어 빌리 장 사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품에 참여해주신 업체와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지사항]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정기준과 판단은 주관처 재량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213) 487-13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주세요.

주최



주관

특별
협찬

엘리트 투어